

보살의 길

2011년 여름호 제 45호



홈플러스 쇼핑다녀오는 길에 한 컷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하 미 숙
생활지도원(13년차)

행복한 노년

입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하씨 할머니가 계신다.

연세가 93세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잡티없는 하얀 피부에, 허리도 곧고, 흔하게 착용하는 기저귀도 안 하였고, 정신도 맑으시고, 이상 하리 만큼 건강하시어 어느날 하루 여쭙어 보게 되었다.

“어르신! 젊었을 때 뭘 드셨기에 그리 곱고 건강하세요”

어르신 왈 “신랑을 잘 만나 고생을 모르고 살았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보약도 많이 먹었어” 하신다. 평소엔 건강에 관심이 많았기에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는지... 고생도 안했고... 좋은 것, 보약도 많이 먹었어...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다 보니 일반인보다 나이든 내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씨 할머니처럼 될까? 김씨 할머니처럼 될까?

내가 어르신들 나이가 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들에 대해 한 가지 한 가지 바램이 생겼다.

첫째, 두 다리에 힘이 있어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고

둘째, 사는 날까지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셋째, 정신이 온전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사소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많이 느낀다.

내가 우리할머니들 평균연령이 되려면 30년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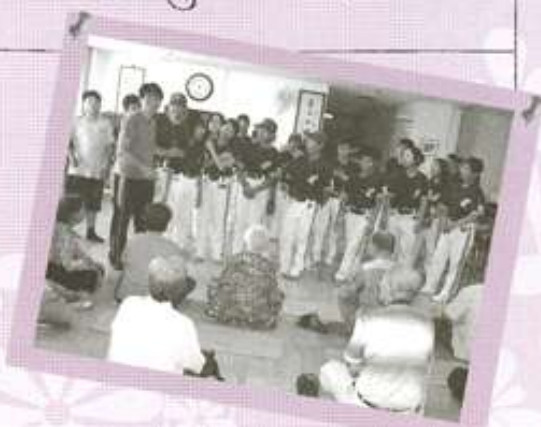
하씨할머니 처럼 좋은 것만 누리며 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나의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여 내 바램 대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본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의 마지막 봉사

6-4 임채민

(서울문백초등학교)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 이름은 임채민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1학기 마지막 봉사활동 시간이 왔네요. 처음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2년전 암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도 안 나오는 만조 기다란 추억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부터 제 마음이 변하고 그때 상처받은 마음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잘 해드리고 이 일들에 저에게 너무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2학기에는 더욱더 바쁘지만 제 마음은 바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학한 2번 정도 다시 올거니까 약에 제가 오랜 후두 인사를 하고 돌아갈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웃으면서 건강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박우영
사회복무요원

전역을 앞두고...

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한글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인 혜명양로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간 사회복지무를 한 박우영이라고 합니다. 한동안의 장마철이 끝나고 여름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여름하니 어렵듯이 제가 2년전 혜명양로원에 배치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양로원의 배치되었을 때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의 근무처는, 직접적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수발하는 일은 아니었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복무기간 동안 처음 해보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선택해서 오게 된 이곳,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복무를 해서 남들과는 비교 불가능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의 나이가 최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라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공간에서 개방적 성격인 제가 적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른 직원과의 마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어려울 때 마다 잘 극복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제대를 하려고하니 저에게 잘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시간이 2년이 지나고 어느덧 제가 복무를 벌써 마무리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복무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요즘 저의 나이에선 볼 수 없는 봉사과 노인공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에 관해서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참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여기오시는 공익분들도 저와 같은 보람찬 복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명한마당



|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

5월 6일 같은 재단의 청담어린이집에서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에게 달아 드렸습니다. 꽃보다 이쁜 아이들의 재롱에 어른들 더 즐거워하셨습니다.



| 민들레 모임 |

민들레봉사단에서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담소도 하고 간식도 나눠주시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은 콩고르기를 했습니다.



| 추억의 영화관람 |

5월 12일 금나래아트홀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추억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예전 영화를 보고 어르신들 그때 그시절 얘기를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 상반기 나들이 (서울투어) |

5월 18일 어르신 20명을 모시고 서울 투어나들이로 청오대-세종로-청계천-조계사를 다녀 왔습니다. 늘 뉴스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가서 이곳저곳을 둘러 보고 왔습니다.



| 양로원 소독 |

5월 23일 환경과 사람들에 나와 양로원 전체소독을 해주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 건강검진 |

5월 26일 입소어르신 전원이 금천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사세요^^



| 플랜트 화분조성 |

5월 30일 숲지기 강지기에서 금천구청의 지원을 받아 양로원의 플랜트박스 분갈이와 식물을 다시 조성해주고 새로운 박스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숲지기 강지기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단오행사 참석 |

6월 3일 금천구 단오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식전행사도 관람하고 부침개와 막걸리도 한잔씩 나눠주시며 단오행사를 구경했습니다.



| 홈플러스 나들이 |

6월 15일 어르신들과 홈플러스 쇼핑을 갔습니다. 간식도 사고 신발도 사며 서로 쇼핑하는 것도 도와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명동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해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직원현황

- ▶ 총 17명
 원장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5명 / 위생원 1명 / 서무 1명
 조리원 3명 / 물리치료사 1명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현재 입소인원

- ▶ 총 64명 (6월 30일 기준)
 할아버지 : 28명 할머니 : 36명

2011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역(1월~6월)

수입		지출	
후원금종류	금액	지출내역	금액
지정 후원금	5,176,400	사무비	8,331,458
		자산취득비	5,170,000
비지정 후원금	14,472,730	사업비	10,749,645
		프로그램 사업비	1,563,490
합계	19,649,130	합계	25,814,593

자원봉사자

2011년 4월 1일 ~ 6월 30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최윤금, 박영숙(밀그램책집), 문덕녀(대림미용실), 임호순 외6명(치과진료), 금천보건소, 조규용, 윤소원, 조명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오정은(건강체조), 백련사울림회, 묵향법사, 지영옥, 최미자, 이순교, 김덕순,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 임길자, 황복순, 이금분, 민귀남(천불가봉사팀), 오정자(아코디언), 이유숙, 이미화, 송영순, 주양희, 신종일, 박현주, 박향자, 신경이, 황현숙, 박지혜, 정진숙, 안형준, 김종윤, 박상준, 최태영, 김재형, 이준호(반야회5기), 박미란(말벗), 김동섭,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안성수(우담바라), 이정순, 고병남, 권영순, 김미정, 박미옥, 전선순, 소미숙, 한종남(민들레모임), 조청길, 양병순, 남숙호, 장재창, 현군자(수지침), 이강택, 양승화, 임효정, 황영이, 이정애, 한미옥(알송달송구연동화), 백은자, 장은정, 이은경, 변상숙, 이영미, 임은영, 민현숙, 정용경, 이호숙, 김계숙, 한성아, 홍성정, 김민순, 김용자, 정수정, 이은순(반야회6기), 오광숙, 조정미, 한미숙, 우양숙, 윤정숙, 홍종임, 김준희, 최은경, 이소영, 김현숙, 양선애, 장은아, 홍은정, 김경일, 이은미, 박미연, 김윤주, 천영희, 이명수, 심경희(반야회7기)

후원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도 넓은신 이해를 바랍니다.

후원물품

119안전센터, 문백초 6-4반, 이윤분, 삼문화, 인천보살님, 금천푸드뱅크, 백련사, 반야회6기 박재근(현성)원장님, 삼진섬유, 공무원노조, 김봉자, 원각사, 독지가, 입소자지인, 윤춘옥, 서서울생활과학고, 사랑의 실천국민운동본부, 혜명회(천불가배우기), gs리테일, 민들레모임, 알송달송공연팀,

후원금품

윤재순 90,000	박성수 90,000	최형기 30,000	권기상 150,000	문금자 40,000	구수미 180,000
구봉순 30,000	이정호 20,000	이애자 20,000	한진택 300,000	백승풍 60,000	독지가 230,000
이복자 20,000	박해정 30,000	한국노인복지중앙회	100,800	양보금 30,000	이종임 60,000
안호주 600,000	기업은행 900,000	김선금 100,000	마희전 40,000	유원조 20,000	박세진 30,000
이순자 60,000	박동필 10,000	양혜선 30,000	박두영 100,000	구충수 90,000	임옥수 90,000
구희관 30,000	황준순 15,000	김송희 25,000	남분식 150,000	반야회5기	300,000
황재옥 15,000	박현우 40,000	김동욱 40,000	황효제 40,000	안형준 40,000	정수환 40,000
김성훈 40,000	맹효진 40,000	노형석 40,000	(주)한국거래소	600,000	김종윤 40,000
박상준 10,000	최태영 40,000	정치원 40,000	이동석 40,000	이동민 40,000	이서경 20,000
박성자 15,000	장선우 40,000	김태준 4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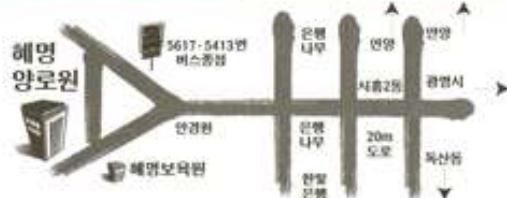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① 지로번호 : 7655940
- ①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① 예금주 : 혜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마을 버스 1번 범일운수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5525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현성 큰스님)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